

| 권두언 |

코로나19와 맞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2020년 여름

코로나19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이다. WHO는 코로나19 백신을 영원히 개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자극하고 미국 등에서는 2차 대유행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가 확실히 지독한 놈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도 진화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그 중 하나이다. 고용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절실함 그 자체였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아쉽게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추진되지 않았으나 합의한 내용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승인되고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별 다른 내용이 없다', '어차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노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해고 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등의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위기산업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특히 노동친화적인 정책일수록 정부가 '당연히 하기는' 사실 어렵다. 해고금지 조항도 이미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해고금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문 전체를 폄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대표들은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수용한 것이며 대통령께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책임지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제 경사노위의 할 일은 합의문에 대한 평가보다 합의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서 대중적 평가를 받는 일이다.

위기의 시대에 사회적 대화의 수혜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가 아니라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같은 일을 해도 차



정흥준

계간 사회적 대화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별을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불안정한 신분의 특수고용·프리랜서·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8월 4일 공동으로 출범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계층별위원회는 향후 경사노위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차별적 지향점 중 하나는 취약계층에게도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기에 경사노위는 계층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제와는 다른 사회적 대화의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지금 경사노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국가가 하지 못하는 거창한 사회적 합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의 자원과 신뢰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경사노위는 사회적 의제 및 위기산업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작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노사정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일터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고 한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4개의 의제별위원회와 5개의 업종별위원회, 3개의 계층별위원회와 2개의 분과위원회 및 1개의 연구회 등 총 15개의 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조만간 1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연구회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상설회의체만 17개가 된다. 모든 상설회의체는 각각마다 애절한 사연이 있고,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룬다. 비록 모든 회의체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이고 한 발짝 내딛는 합의도 가능할 것이다. 오늘도 각 회의체에서 토론 토론하고, 때론 논쟁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들께 감사의 경의를 표한다.